

### 소망의 언덕



최정원 목사  
광주소명교회 담임

김병태목사님이 쓰신 “습관을 바꾸면 죄를 이긴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어느 이민 교회에 담임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다. 그동안 교회는 성도들 간의 말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이 컸었다. 목사님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의 선언을 선포했다. 이른바 “언어 실명제 선언”. 여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다. 첫 번째는 직접 듣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밀도 끝도 없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누가 그러던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라는 말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자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한 말에 분명히 책임을 지자는 것이다. 언어 실명제 선언 선포 후에 그 교회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눈에 보일 정도로 회복해졌다는 것이다.

### 칭찬과 책망의 경계선에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고 했다. 말이 그 사람이다. 사람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을 보면 그 생각의 한계를 알 수 있다. 영국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이다.”고 했다. 그 사람의 품격도 하는 말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를 ‘언어 품’이라 한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언18:21)고 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 그루델(Ann Grudel)은 구순구개열(언청이)을 가지고 태어나 어린 시절 심한 열등감에 시달렸다. 친구들은 놀아주지 않았고 거기다 부모도 이런 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앤 그루델이 다니는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를 했다. 교실 한 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 저편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 하는 소리를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그러면 들리는 대로 ‘오늘 날씨가 좋아요’라고 답하면 되었다. 드디어 앤의 차례가 되었는데 선생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쳤다.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에 앤은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청각 시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앤은 지금까지 그런 말을 능담으로라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는 말에 충격을 받은 앤은 대답 대신에 ‘선생님 정말이세요?’라고 되물었다. 이 말의 뜻을 알아치러 선생님은 ‘그럼 그렇지고 말고, 나는 정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그 한 마디의 말이 왕따를 당하며 인생을 원망하던 언청이 소녀 앤 그루델(Ann Grudel)을 심리학 교수가 되게 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하신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막:11)

칭찬과 격려는 우리에게 산소 같은 힘을 준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만 찾아다니는 인정 증독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또 다른 함정이다.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고, 상처받는다. 타인의 반응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인정 증독에 빠진 것이다.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람이 속했나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내가 물두하는 것을 보면 안다. 약간의 비판에 분노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칭찬에 내 기분이 고양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케 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대양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치는 인생이다. 인정 증독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의 인정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 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다(고전4:3).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라고 했다. 정죄라는 물결이 있지만, 바울이라는 배를 흔들 수 없다는 말이다. 주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

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고전4:3-4)

세계적인 축구 선수 펠레가 쓴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게임” 책에 보면 스포츠 기사에 일회일비(一晝一悲)하는 펠레에게 그의 아버지가 따끔하게 가르친 종교의 말이 나온다. “지금부터 ‘바우루 데일리’의 스포츠 섹션을 읽지 말아라. 거기엔 너희들에 관한 기사도 실리고 사진도 실렸다.

신문에서 너희들에 관한 기사나 사진을 보면 너희들은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기 쉽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선수가 자만심에 빠지면 자신의 장점만 보게 되고 단점은 절대 보지 못하는 법이다. 그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도 치명적이다.” 축구든 사업이든 큰 승부일수록 자기 중심을 지켜야 한다. 너무 주변을 의식하면 자칫 큰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의연하되 겸손하고 진중하되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에서 승패를 뛰어넘는 감동과 믿음을 얻게 된다.

\* ‘바우루 데일리’ 브라질 바우루 지역 신문  
성경적 관점에서 칭찬은 격려와 위로로 통해 신앙을 지키게 하며(계2:2-3), 책망은 느슨해진 신앙과 세상과의 타협(계2:14-15)을 바로잡아 온전케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칭찬을 감시로, 책망을 은혜로 받는다면 칭찬과 책망의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겸손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외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회산책



과학자들은 지구가 태양이 주는 열의 혜택을 누리기에 딱 알맞은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워도 금성의 경우처럼 모든 물이 증발했을 것이고, 아주 조금만 멀어져도 화성에 처처럼 모든 것이 얼어버렸을 것입니다. 또한 지구는 적절한 양의 중력을 만듦에 딱 알맞은 크기입니다. 중력이 더 작았다면 달과 같이 전체가 휘황한 중력 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반면 중력이 더 컸다면 목성과 같이 생명체를 질식사시키는 독가스에 갇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복잡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상호작용에는 정교한 설계

### 능력

자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정교한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주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욥38:4~6). 이 창조의 광대함을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가히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들의 생성과정을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는 앞으로 밝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지요.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나들씩 밝혀질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한 부분

만 열어놓고 그 기초위에 가설들을 쌓아 가나가 정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적이라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자연히 생성될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창조자가 있다는 가설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으로 현재 지구상에 나타난 상황에 대입해서 더 잘 맞는 쪽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고도의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은 배제한 채 자연히 생성될 가능성만 가지고 연구를 발전시키다 보니 자꾸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민

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고대 인류에게나 현대 인류 모두에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폭넓게 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편지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한 점의 오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가설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지식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더욱 그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지식에는 지식의 정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식이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한 지식의 발전도 진행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정점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과학적인 법칙을 제정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주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오늘날 그분의 운행하심으로 천지가 운행되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석인 목사  
광주크리스찬 아카데미 대표

외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 일하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직장인클럽 100일 목상집 \_ 4. 균형\_일과 여가, 교회-가정-직장의 조화

###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평생직업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가 평생직업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봉제가 대세인 상황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연봉을 잘 모르기도 한다. 일을 할 때도 팀제가 일반화되고 개인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점점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대에 ‘덜터 공동체’를 이야기하면 너무나 어색하고 고리타분한 것인가?

다윗이 블레셋 왕 시글락 성에 머물 때의 일이다. 아말렉 족속의 침입을 받아 가족들이 사로잡혀가고 노략질을 당했다. 다윗은 지체 없이 그들을 추격했다. 그런데 승전하고 돌아올 때 “악한 자와 불량배들”(22절)이라고 표현되는 몇사람이 불만을 제기한다.

추격전을 벌일 때 피곤하여 함께 추격하지 못하고 머물렀던

200명의 동료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나누어주지 말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남아 있던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피곤해서 가족을 구하는 전투에 참전하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형제’이고, 수많은 적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전사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 의식의 근거이다. 다윗의 심정을 한 번 생각해보라. 위기를 극복하고 크게 승리하여 흠뻑 땀 흘려서 얻은 승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때에 공동체 의식을 그르쳐버린 것은 그 ‘트러블 메이커’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23절).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이다. 다윗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마저 마음에 품고 있었다. 우리도 일터에서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자.

>>> 일하는 사명의 기도 일과 여가의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제대로 일하고 잘 쉬면서 우리의 일이 비람직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 외의 협의를 거쳐 게재한다. (원문일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니엘)

##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농어촌·미자립교회, 군·경 선교 및 기독교 선교기관에

### 미션리 신문을 보냅니다

‘맑은 크리스찬 따뜻한 세상’을 추구하는 미션21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각 선교단체,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등에 신문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복음화와 크리스찬 문화 창달을 위해 복음과 함께 교계의 소식을 담아 매주 발행되는 미션21 신문보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2026년 7월 창간 27주년을 맞게 되는 미션21이 이제 문서선교의 보다 넓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CMS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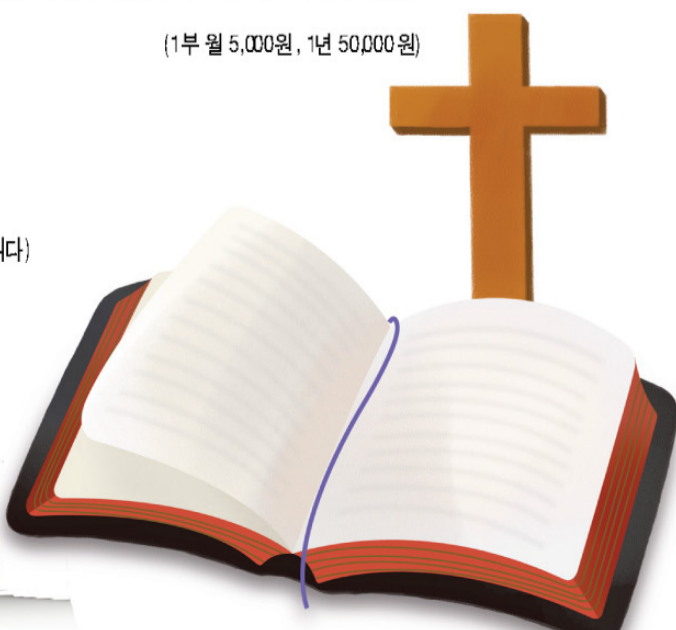
(1부 월 5,000원, 1년 50,000원)

#### 1 정기후원 : CMS 가입

- 미션21 홈페이지(ims21.tv)에서 CMS 가입
- CMS 신청서 작성 후 반송봉투에 넣어 신문사로 우송  
※신문사로 연락주시면 반송봉투가 들어있는 CMS신청서를 자택으로 보내 드립니다)

#### 2 일시후원 : 계좌이체

- 농 협 : 301-0090-0060-71 예금주 : (유)미션21



작성하신 후원내역은 홈페이지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C.P : 010-4832-7824 / e-mail : p1729303@nate.com

#### 미션리 정기구독 CMS 출금이체 신청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복을 담은 신문 미션21이 군부대, 소년원, 교도소, 도시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도서벽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문서선교에 동참해주세요.

| 신청인 정보   |  |
|--|--|
| 성명 :   |  |
| 전화번호 :   |  |
| 주소 :   |  |
| 신청일자 :   |  |
| 계좌정보   |  |
| 은행명 :  |  |
| 예금주 :  |  |
| 지정출금계좌번호 :   |  |
| 주민등록번호(알 6자리만) 또는 사업자번호 :  |  |
| 금액(매월)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 )부   |  |
|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일 |  |
| 후원기관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위와 같이 출금계좌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또는 서명

장동 기독교 주간신문 **미션리**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 (동삼빌딩 3층)  
 전화 : 062)367-9109, 364-9109 / 팩스 : 062)367-9108

◆ 창간 27주년을 기념하여 ◆  
 본 신빙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공동대표(대표인명, 지명, 계약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신청하는 때로부터 해당신빙 계약 및 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공동대표 계약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적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202년 월 일  또는 서명